전 가 동 향

에너지관리공단, 국내 전동기 사용실태조사 실시

에너지관리공단은 산업 및 건물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력다소비 품목인 각종 전동기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7월부터 약4개월동안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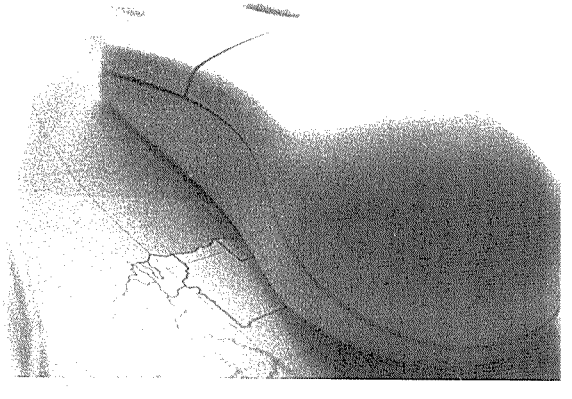
국내 전력소비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전동기는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중의 하나로서 금번 실태조사는 전동기용량 0.4킬로와트(약 0.5마력)이상의 일반주택용을 제외한 각종 산업체, 업무용건물, 상업용건물등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전동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동기 사용실태조사는 산업자원부의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국내전체를 대상으로 전력사용용도 및 규모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표본가치가 우수한 전동기사용처 약 5,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이중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약 500여개소를 선별해 현장실태조사를 수행한다.

또 본 실태조사와 병행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전동기사용처의 설비관리 담당자가 보다 쉽게 조사에 응답하고 다양한 전동기에 대한 설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동기 등록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torsurvey.or.kr)를 개설해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체제에 들어갔다.

전동기에 대한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원하는 사용자는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 본 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회사의 전동기 제품사양 정보와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전동기에서 전력소비량 및 전기요금 소요내역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효율전동기가 얼마나 현장에서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규모가 향후 보급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에게 전동기 설비관리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PL 대응책

한전은 7월 1일 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PL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 부서별 대응책을 마련,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전은 본사 대강당에서 전기의 제조물 책임법 적용 법리에 대한 실무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제조물책임법 연구원장인 최병록 서원대 교수를 초빙,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한전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최병록 교수는 특강에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행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한전의 책임 대책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도 전기가 제조물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한전의 제조물 책임 대응방안으로 규정전압과 주파수 유지방안, 전기설비 고장감소 노력강화, 전기관련 표시안내 확대 방안 등을 강조했다.

최병록 교수의 제조물책임법 특강에 이어 실시된 본부별 사업소실무교육에서는 영업본부와 송변전사업본부의 본사 실무과장들이 실무부서의 제조물 세부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한전 영업본부는 우선 PL법 대응방안으로 휴전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PL법 시행이 휴전안내 업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피해 보상요구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분쟁에 대비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휴전업무 처리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휴전안내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문을 사업소에 발송할 계획이다.

영업본부는 또 전기안전사용 관련 표시안내를 확대해 나가고 공문 발송 등 입증 가능한 방법에 의한 안내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전피해 민감고객에 대한 피해방지장치 설치 안내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영업본부는 배전분야 대응방안으로 통상적인 배전설비 점검과 정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배전선로 규정전압의 유지범위를 준수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 배전설비의 안전유지를 위해 선로순시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민원제기를 대비해 업무실적 증빙자료를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한전 송변전사업본부는 변전소 배전선로 송출전압과 송전전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규정전압과 주파수를 유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따른 고장정전을 최소화하고, 각종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는 등 송변전설비의 안전관리와 고장감소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위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각종 민원과 소송에 대비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전 가 동 향

한전, 고효율인버터 보급확대 적극 추진

고효율 인버터 보급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전력은 올해 고효율 인버터 5,000대(95M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6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한전은 이와 관련 관련업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고효율 인버터 보급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것을 주문했다.

한전은 우선 매체 광고와 함께 전기 다소비 업체에 고효율 인버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대리점 관리 및 교육 강화, ESCO 업체와의 상호협조 체제 구축, 관련조직 및 인력확충을 요구했다.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종전에 시험기관과 제작업체가 사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업체에서 사후관리 비용을 지불하던 것을 한전과 시험기관이 사후관리 시행방법 및 비용지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험기관과 제작업체가 사후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사후관리 성능시험도 220V, 380V별로 7.5~37kW, 45kW이상 군별 1개 세트씩 성능시험을 하기로 했다.

[제도개정 사항]

항 목	현 행	개 정(안)	시행일
지원대상	산업용	전체 고객대상	'02. 3. 27
재 원	한전 자체예산	전기요금서 일정액 부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	'02. 3. 27
예산운영	연간 예산범위 내	내용삭제	'02. 3. 27
사후관리	● 사후관리비용 부담 : 업체	● 사후관리비용부담 - 정기 사후관리 : 기금 - 수시 사후관리 : 업체	'02. 3. 27
대상업체 인정방법	● 고마크 관리 : 한전 ● 대상기기의 시험 성적서를 한전에 제출 ● 한전에서 검토후 전담기관(전력연구원)에 인정추천 ● 전담기관에서 승인 ● 한전에서 승인서 발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관리 : 에너지관리공단 ● 한전에서 검토후 전담기관(전력연구원)에 인정추천 ● 전담기관에서 승인 ● 한전에서 승인서 발급	'02. 7. 1
지원상한액	호당 연간 3천만원	호당 연간 5천만원	'02. 7. 1

한전, 22.9kV 방전장갑 등 국산화 추진

한국전력은 22.9kV 방전고무장갑 국산화 개발 등 8개과제를 사내공모를 통해 발굴, 제품개발을 추진한다.

한전은 사내공모과제 실무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 사내공모 8개 과제와 조건부 1개 과제등 총9개 과제를 선정했다.

한전은 이중 조건부 1개 과제는 실무부서의 심사 과정에서 불채택돼 최종 8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내공모과제는 배전부문 5개, 송변전 2개, 통신 1개등 총 8개 과제다.

개발과제는 ▲22.9kV 방전고무장갑 국산화개발 ▲노후 콘크리트 전주의 잔존 수명평가 진단기 개발 ▲지중배전관로 되메움재의 다짐도 판정장비개발 ▲23kV급 절연 안전화 개발 ▲23kV급 절연조끼 개발 ▲765kV 1회선 철탑설계, 제작 및 건설기술 개발 ▲25.8kV GIS 디지털계전기용 변성기 개발 ▲Grip형 OPGW 금구류 개발등이다.

한전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 총 개발비의 75%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과제개발을 위해 오는 21일 개발업체 공모공고를 낼 예정이며, 10월 초 업 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한해 한전이 중소기업협력과제로 선정한 과제수는 지난달 선정한 6개 과제와 이번 8개 과제 등 모두 14개 과제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선정된 과제 수보다 1개 과제가 많은 것이며, 올 상반기 단 한건도 채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대폭 지원되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과제선정으로 올해 지원되는 과제수는 14개로 늘어났다"고 말하고 "향후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은 물론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 중소기업팀은 이를 위해 선진국의 중소기업 지원사례를 벤티마킹 하는 등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원전 전공정 확대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국내기술기준이 발전소의 설계 · 시험 · 검사 등 전과정에 걸쳐 적용된다.

그동안에는 국내 독자기술기준이 없어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설비 공급국의 기술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왔다.

대한전기협회는 최근 한수원과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부지정지공사를 시작하는 신고리 1,2호기부터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KEPIC은 전력설비의 설계 · 제작 · 설치 · 시공 · 시험 · 검사 등 전 과정에 대해 기술적인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산업기술기준이다.

KEPIC은 오는 2005년 6월에 준공되는 울진 원전 5,6호기의 보조기기 일부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신고리 1,2호기 부터는 주기기, 보조기기

모두에 적용되며 해외업체가 기기 발주에 참여할 경우 KEPIC을 획득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11개의 시공사를 비롯해 71개업체가 KEPIC을 획득했으며, 해외업체중에는 안전밸브를 만드는 프랑스의 세빔(SEBIM), 독일의 술저(Sulzer) 등이 KEPIC 인증획득을 준비중이다. 대한전기협회는 KEPIC을 국제입찰시 적용할 경우 기술기준이 무역장벽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12월 스위스에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전기기술위원회(ISO/IEC) 정보센터에 WTO/TBT 부속서 공정관행규약의 이행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협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원전건설에 참여하는 국내업체의 경우 미국의ASME(미국기계학회)코드 등 외국의 기준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조치로 원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독자적인 기술기준을 갖춘 명실상부한 원전 선진국이 됐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고효율안정기 122만개 보급, 램프 6만7천개 · · · 총2050건 58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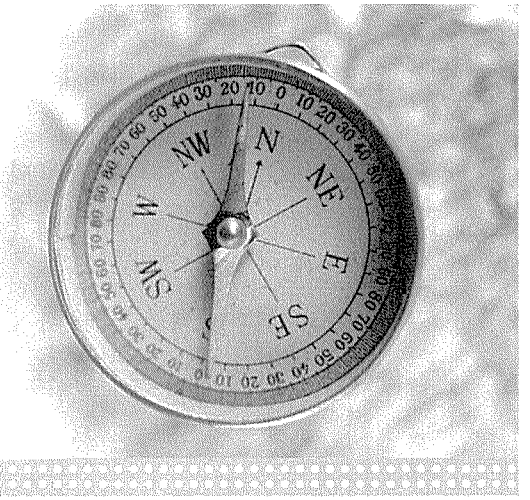
올 상반기까지 정부 지원을 통해 설치된 고효율 안정기는 총 122만7천86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안정기내장형램프는 6만7천773개가 보급됐다. 고효율조명기기지원사업 주관기관인 한전은 올들어 6월말까지 총 2천50건의 고효율안정기와 안정기내장형램프 보급사업을 펼쳤으며 총 5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01년 고효율조명기기지원사업은 안정기의 경우 301만6천34개, 안정기내장형램프는 19만3천847개로 총 118억원이 지원됐다.

한전 관계자는 "초 · 중 · 고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고효율조명기기 수요가 최고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지원실적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동안 한전이 고마크제도에 의해 운영했던 고효율조명기기지원사업은 올 7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마크로 통합됐으며, 개당 지원단가도 2등용 안정기 4천210원, 1등용 안정기 2천800원, 안정기내장형램프 2천50원으로 변경됐다.



조명업체 고객의견 홈페이지 수렴 늘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업경영에 반영하는 조명업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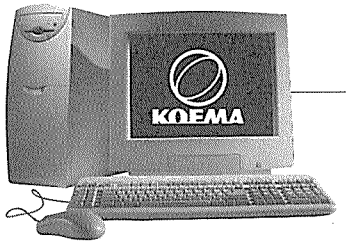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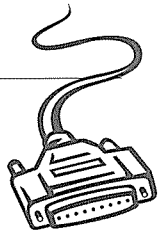
몇 년전부터 국내 조명업체들은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제품이나 기업 연혁 등 국한된 내용을 소개해왔으나 최근들어서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기업경영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조명제품은 일반 소비자들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선호도나 품질에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는게 업계관계자의 얘기다.

(주)오스람코리아(대표 한스-요아힘 브렌하우젠)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석달에 걸쳐 오스람제품을 파는 인터넷 전용쇼핑몰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대해 참가자 3천193명중 37.5%인 1천196명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재 오스람은 인터넷 전용쇼핑몰 개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스람은 자동차램프를 생산하는 것을 알고있냐는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금호전기(주)(대표 박명구)의 경우 현재 자사제품을 주로 어디서 구입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신광기업(주)(대표 성덕수)도 제품에 대한 품질만족도를 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네티즌들의 의견이 회사 경영방침을 세우고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조명업체들의 홈페이지 활용은 앞으로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